

금추일언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피하여 그 때문에 탐욕과 고만만 더하니 이상하여라. 이익을 잃음이어. 그들은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리니. (법구경·이양품 7절)

東大新聞

발행처	행인	인쇄	송	석	구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과 범위 대폭 확대 일부 첨단학과 위주에서 전학과로

내년부터 전과대상 학과가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교육부의 대학학부생 정원령중 개정령에 의하면 현행 일부 첨단학과 위주로 이뤄지던 전과가 2학년 또는 3학년 전학과 대상으로 학과 정원의 10% 범위내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점 서울캠퍼스 이공계 9개학과 71명, 경주캠퍼스 이공계 3개학과 16명등 87명이 전과할 수 있었던것이 서울캠퍼스 1, 2학년 5백42명, 경주캠퍼스 1, 2학년 3백72명 총합 9백14명이 전과를 할 수 있게된다.

장오현(경제학)교무처장은 "전과 제도는 학과간 장벽을 낮추어 학생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변경하여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다양하게 이수하여 졸업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것"이라며 먼저 전과제도 변경에 따른 회합자의 자격과 대상계열, 학과별 기준설정 작업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과 자격요건은 대학학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3.5이상인 2학년 학생으로 1학기 중에 실시됐다.

부설연구소 통합·개편 연구역량의 극대화 추구

본교22개 부속연구소가 7개로 통합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통합·개편된 연구소를 살펴보면 △물리화학연구소=물리화학연구소, 선학연구소, 불교미술문화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 안보연구소, 공간행정연구소, 사회조사연구소, 유럽연구소, 지역발전연구소, 지역환경연구소를 통합 △경제경영연구소=경영관리연구소, 해외개발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회계연구소를 통합 △교육연구소=교육문제연구소 개편, △자연과학연구소=자연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농림과학연구소를 통합 △산업기술연구소=산업기술연구소, 반도체연구소, 정보통신환경연구소

를 통합 △멀티미디어종합연구소가 신설되며 경주캠퍼스의 '한국의대학부설 한의학연구소'가 한의학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번 연구소 통합·개편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연구분야나 기능이 유사한 연구소를 통합하여 집중화, 체계화, 조직화함으로써 특성화된 연구조직형성,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 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연구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부속연구소가 교수개인의 사설연구소수준에 머물렀다"며 연구활동의 저조, 교외 연구프로젝트 선정률 저조등 그간 연구소가 안고있던 많은 문제점이 이번개편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등 논의 수위·경비직 근무체계 개선안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 이어 '제2차 노사협의회'가 1차협의에서 미뤄진 수위·경비직 근무체계 개선과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안건으로 지난달(9월)22일 교무위원회의에서 있었다.

수위·경비직 근무체계 개선안은 노사 양측이 3교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숙직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조측은 휴일근무 실시를 제안했으나 학교측은 경비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거부사를 보였다.

또 노조는 1조 출근시간을 6시에 7시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학교는 같은 이유로 역시 거부사를 표명했다.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은 올해초 단체협약에서 확정된 사무

기능직의 일반기술직 9급으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으로 양측 모두 10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8급승진 대상에 있어서 노조측은 15년이상 근무한 자를, 학교측은 전환후 5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전환 및 승진의 평가에 대해서도 노조측은 공동진행, 학교측은 학교측 단독진행을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이 두가지 안은 오는 11월에 있을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국어 교육비는 현행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났고 체육대회는 학내 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

한편 교섭위원회는 1차때와 같다.

'학부제 실시'논란 평행선 합의점 찾을수 있는 논의구조 모색해야



◇학부제 실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있다. 명분론보다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은 학교측과 학생대표간의 면담 장면이다.

학부제 실시를 둘러싸고 '전면 유보'를 주장하는 총학생회와 '일단 실시'를 고수하는 학교측의 대립이 종장실점거 등 극단으로 치달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람기사 5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계열화 반대와 학사행정 쇄신을 위한 제3차 '1만동약결의대회'를 위한 27일 오후 도서관앞에서 열었다.

'준비없는 계열화모집 반대'를 위해 열린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 안진우군은 "학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참여도 보장되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학부제 도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학부제 도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측은 이 담화문을 통해 총학생회의 종장실점거과정을 "직원들이 퇴근한 직후 분관 4층 난간을 통해 진입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학부제는 무원칙하게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93년부터 '21세기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준비해온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 학교측은 "10월 2~4일경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며 "조속히 점거능성을 중단하지 않을 시엔 학칙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점거능성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법대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대자보를 통해

"담화문의 종장실점거과정 묘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또 총학생회는 29일 경교문을 통해 "과연 3년 동안 연구해 온 학부제를 어떻게 교수, 학생은 물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모를 수 있느냐"고 말하고 또 무분별한 학부제의 일파로 야간강과 북한학과와 신문방송학과의 통합을 들었다.

총학생회는 이 경교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 △교수, 학생, 학교당국이 함께 하는 논의구조 확립 △지난 28일 담화문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오늘(2일)까지 요구했다.

보리수

가치관 확립

동양사회의 정체(停滯) 현상을 기독교적 우월주의로 분석한 사립은 독일의 막스 베버였다. 그에 의하면 동양사회의 정체현상은 동양종교의 낮은 가르침, 즉 유교의 충효윤리나 불교의 윤회업보설 같은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충효윤리나 윤회업보설은 피지배계급의 일방적 희생과 순종의 미덕을 강조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수직적 통치구조에 유용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근대화를 지향하던 우리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져서 한때는 동양적인 것,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낮은 것이요,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된 적이 있었다.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구화·근대화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옳았다.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폐기처분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최근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건들을 단순히 건설기술이나 행정감독상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성실과 책임과 같은 가치를 낮은 것이라고 의문하고 능률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불러온 무서운 결과이다. '반야심경'에서 지적하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도몽상으로 치닫는 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로 잡혀야 한다.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달리아마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엇을 변화시키려면 일단 우리 자신의 내면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상상을 통해 그 정원을 그려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 상상속의 그림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홍 사 성
불교TV 제작국장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혜택 이번학기부터 수업료 반액

본교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에서는 95학년도 2학기부터 해외교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

이전까지 해외교환학생들은 자비로 등록을 해야하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2학기부터 수업료반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돼 자비등록부담이 줄게되었다.

국내 여타학교에서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있는 이 계획은 올해 말 해외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을 확정 지음으로 더욱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학기 수혜자는 모두 11명이다.

회장, 국회의원)는 재학생들에게 1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계산고시사에서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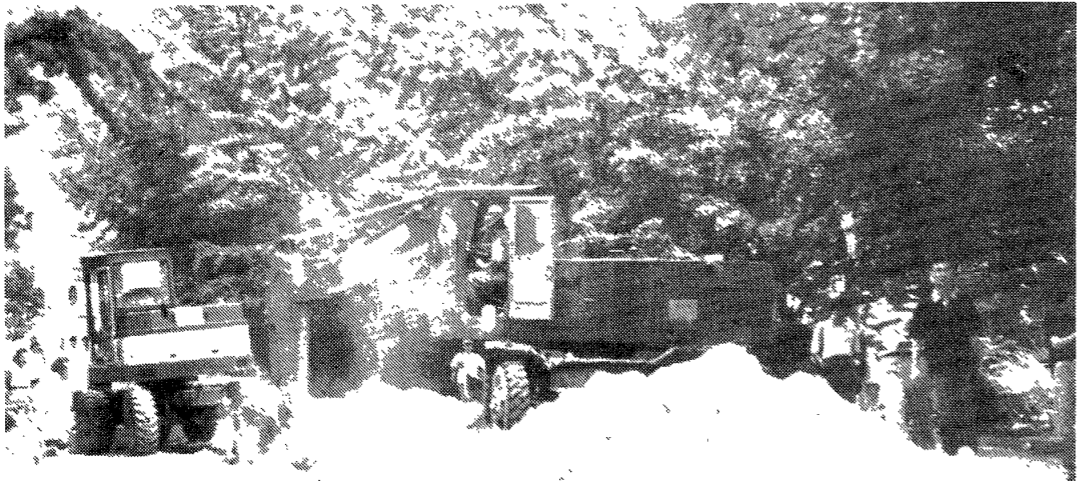
교수동정

▲임호일(독문학)=제4차 정례학술회의 외국문학의 번역과 우리 문학에서 "번역은 원전에 대한 도전인가?"를 10월6일 독일문학회에서 발표.

본사사령

◇임 기자
▲김희동(문과대 영문1)
▲한상용(문과대 일문1)
▲허민희(인문대 사회복지1)
▲조인선(자연대 가정교육1)
(이상 10월2일자)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합니다



"21세기를 위한 보물찾기"

도서관·강의실·연구실·실험실습실 등 제반 시설 확충이아말로 대학의 변화와 발전의 요체입니다. 현재 전산망 구축사업(LAN관로시설)과 가스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전산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의 원활한 접속으로 국내외 최첨단 학술정보의 교환교류가 가능케 됩니다. 교수연구 및 학생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교무처 관리처

포크레인에 대한 기억

언젠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사거리에서 본 포크레인 하루 공사 모두 마친 후 긴 폭 땅에 박아 놓고 깊은 반성하고 있던 그 휩쓸 성성한 늙은 기계가 문득 가슴 한 쪽에 놓인다 중형으로 달아나는 도로 위 가변운 밧무리를

표류하는 속도는 그저 편리 할 뿐 가장 깊이 파들어간 반성이 지혜를 만든다 높이 오를수록 세상은 본 모습이 아니니 내려다 보는 모든 창문들은 오만한 관념이다 깨지고 피흘리는 한 시절이 있었고 얼굴을 땅에 들이박고 제 상처를 제 손으로 그어본 연륜은 광석과 같아 이젠

푼길 분주한 사거리에서도 포크레인은 조용할 수 있다 오늘 그를 운전했던 기사와 야시바를 울리고 철근을 나르던 지상의 누추한 삶들을 생각하면 녹슨 나사가 풀리듯 근육이 조금씩 내려 앉을때까지 쉬지 않고 노동하는 질긴 생업의 고통은 힘이 된다 그날이 오면

누구하나 헛되이 자본을 구하지 않는 세상의 새벽에 분노한 무기가 될 것이니 깊은 반성은 가슴에 놓인 칼날이다 지금은 저렇듯 원한만 불꽃 아래 제육의 심부름꾼으로 보이는,

박 준 영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시사논단', 새로운 시도

지난호 동대신문(1182호)을 펼쳐 보면 가장 먼저 시사논단의 변화가 눈에 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견해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 참 신선하다. 성격과 분량면에서 읽을 임무가 나지 않던 기존의 시사논단을 생각해 볼 때 이번호의 시사논단은 정말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사논단이 사실과 함께 동대 신문에 대표되는 하나의 목소리 즉 논조라고 볼 때 이전 시도는 조금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잡는 것이 있다. 요즘 학내에서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학부제 문제 관련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편지이나 기획의 신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사의 반박에 의해 눈에 띄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부제'라는 사안이 중요하면 편집의 참신함이나 기획의 신선함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야지 지나친 반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아무쪼록 항상 독자를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더 나은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이 수훈 (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경제학과 분사모니터)

문화관련기사부족

지난호 동대신문은 일면 TOP 기사를 5·18 2차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편집능력과 지면활용의 무배려로 기사가 부각되지 못했다.

그리고 동국대학의 발전을 생각해 보는 기획시리즈는 날카롭고 시원한 통찰이 있고, 문제의식의 참여를 이끄는 함의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너무 서울캠퍼스만 치우친 일방적인 기사라는 점에서 진정된 동국의 발전을 생각하는 의의는 아쉬웠다. 또한 「동국만경」은 신선한 아이덴티티를 제시함으로써 시각을 새롭게 했으며, 「토박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소재를 제시해주지 못함으로써 진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동국대학의 연극영화과가 유명해서인지 그것과 관련된 문화기사는 많았지만, 음악·미술·문학(책)등과 관련된 기사는 너무 부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에 비교하고 싶은 것은 한주든, 한달이든간에 동국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하고 좀더 성숙있는 기사편집능력이 요구된다.

윤 영미 (자연대 가교과·본사 모니터)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계시판이나 ID: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5·18학살자 처벌위한 동맹휴업실시

진상규명·특별법제정은 역사적 당위

지난 29일과 30일에는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동맹휴업과 함께 5·18 학살자 처벌과 학살자 비호 김영삼 규탄대회가 계속적으로 열렸다. 교수님들도 서명운동에 이어 휴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5·18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고 있다. 현 정권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렵고 국민의 지탄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29일에는 도서관앞에서 5·18집회후 시내 선전전으로 나가려는 본교학생 5백명가량과 전경들이 충돌에서 대치했다. 최후판과 지랄 탄에 맞서 여기저기서 불을 꺼고 장들을 만드는 모습은 5·18의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였다.

수업을 휴업했다고 해서 개인적이거나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함께 투쟁에 동참하는 학우들을 볼 때, 특히 평소 학업에 열심이었던, 집회에서 불수업했던 동기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투쟁이 정말로 진실하고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폭력으로 과잉진압하는 전경과 현정권을 우리는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

5·18민주화 투쟁은 광주라는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현대사속에서 민주화운동의 시발이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때 우리의 역사는 또 어떻게 왜곡변질될지 모른다. 일제 친일파·잔재청산이 제대로 이뤄지

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현대사는 집착을 거듭해왔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정권의 5·18책임자 불기소 처리방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역사적 비극인 것이다. 문민정부라고 김영삼정권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거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으며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5·18의 진상규명이 이뤄질때만이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 소 영 (사범대 수교과)

에니메이션, 각광받는 문화산업

현실적 정책 전환 이루어져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상매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애니메이션은 가장 각광받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TV를 켜면 알 수 있듯이 국내방송 및 위성TV를 통해서 수많은 애니메이션 즉 만화를 접하게 되고 그 수와 내용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까지 우리의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첫째, 만화를 어린이들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출판되는 만화잡지들은 어린이는 물론 중고등학생 이상, 성인층까지도 겨냥한 만화잡지들이 즐기고 있다. 또 극장에서 상영된 '라이온 킹', '알라딘'과 같은 디즈니 만화도 주 관객층이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이 주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둘째, 국내 만화작가의 무분별한

표절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만화의 상당수가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역사가 아직 길지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일본만화에 대한 표절을 그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실 예로 심수년전 '새소년'에 연재된 '바벨2'를 들 수 있다. 이 말을 들

는 상당수 사람들은 '어 바벨2'가 일본만화였나?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소개된 일본만화들은 제작국과 제작인을 철저히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로보트만화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마징가Z'는 일본인이작가 나가이 고의 대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제기도 음은 그대로따고 가사만 살짝 바꾸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만화의 폐쇄적인 구도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만화가 표절인지 알 방법이 없고 이를 악용한 만화가들이

무분별하게 표절할 수 있는 이유이다.

가장 근대의 예로 얼마전 에니메이션화되어 한국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선전하고 있는 '붉은머슴'은 일본작가 토리아마 아키라의 '드래곤 볼' 등 여러 인기만화를 참조하여 만든 혼합형 표절작이다. 이러한 만화를 함부로 에니메이션화하여 수출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대중문화의 후진성을 세계에 선전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는가?

이제까지 짧게나마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화에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정부차원의 현실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 원 형 (삼경대 관광경영학과)

동/문/칼/럼 '간헐 사회'



86년 가을, 단풍되고 낙엽 필구는 계절이었지만 당시의 정국은 급박하게만 돌아갔다. 87년의 극적인 승리를 서서히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 역사의 마당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때 불확실성을 주도하다 현장에서 잠정서 지금은 열리고 있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몇개월 남짓 살고 다시 마산 교도소로 이감까지 바뀔소식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다.

마산, 난생 처음 가본 곳이어서 여러 가지가 낯설었다. 교도관이 나 재소자들의 강한 역량의 사무리를 알아 듣기 힘들었고 짜고 치는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았다.

그곳은 다른 곳의 방보다 길게 설계되어 더 좁게만 느껴지는 0.75평짜리 복방이었다. 누우면 관짝 같이 똥똥하게만 생각되었고 웅변이 항상 넘칠 듯이 차 있는 뽕기통에서는 약취는 물론이요 구더기까지 기어나와 자라보면 이불속에서 꿈틀거리기도 했다.

열방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막걸리보안법'으로 잡혀 들어온 남부어부가 이미 3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분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나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 밤을 줄 거 달라고 싸움을 벌였다. 결국 3일 뒤에 나는 내 뜻대로 무려 6.5명 짜리 운동장 같은 방으로 옮겨갈 수 있었는데, 아불새! 그곳은 병사(病舍)였다. 병사 중에서도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신병동.

넋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는 대화의 상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두눈의 초점을 허공에 맞추고 똑같이 어깨를 움츠린 사람들이 어찌다 보면 멍하게 내 방 창문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했다. 그때마다 심정저지곤 했다.

무릎을 꿇다가 가끔 운동장에 나온 다른 사들의 양심수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때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유서대필의 열의를 뒤집어쓴 강기훈 형이다. 항상 순진한 웃음을 잃지 않고 말수 적은 시골 소년 같은 느낌이 아

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루는 이 형이 얼굴에 웃음을 지우고 내 방 창문에 매달려 비장한 말을 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핑기가 가진 재소자들의 표정이나 눈빛이 달라진 교도관들을 보면서 나의 동물적인 본능은 김일성의 죽음이 여기 강했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터무니없는 관계를 알아채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일성이 죽었으니 전쟁이 날 것이고 전쟁이 나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신들은 제일 먼저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터무니없는 유추는 집단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아래서는 전혀 터무니없지 않았다. 더구나 그것은 30분씩 하던 운동시간도 없었다. 교도관들도 보이지 않았고 방송을 듣고 온 소지들이 전달해주는 예기의 뉴스는 지금이라도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이 긴장의 시간 동안 교도소 전체에는 침묵이 흘렀다. 다음날 오후가 되어야야 잘못된 침묵에 의한 해프닝임이 밝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그 하루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찾고, 만들고 싶어하는 민족과 조국의 미래보다도 나의 존재와 생명 자체에 대해서도 논리나 담위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감정과 욕구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견을 하고 스스로를 극단으로 몰아세운 그 행은 무엇일까?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함에 지배당하고 있는 간헐 사회가 아닌가? 그 해 겨울 특사로 풀려나고 몇 해가 지난 작년, 정말로 북한에 김일성 주석은 죽었다. 몇몇 신문에서 구애를 뚫고 전경을 주제로 한 기사를 쓰곤 했지만 전장을 받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공공하다, 교도소 안에서 또 그 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황찬익

(월간 '불광'편집국장·국문이철)

목errick

☐ 축하합니다

■내일(23일)은 국어교육과 현주의 생일입니다. 모두 뽐뽐해주시다. (단, 여자만...승재고 나오세요)

■수교과 94해원의 생일(10월6일)을 축하합니다. 과에서 가장 귀엽대요.

■수교과 92학년 장우성(5일) 서영민(22일)제대 축하합니다. 수교과 92년세!

■지현선네 소개팅성공 축하!

■명연이 복한and제대 축하한다 - 법대친구

■S-S와 S-Y의 만남을 축하! - 철학과 동

■경제학과 반갑씨(?) 창우의 생일(9월28일)을 축하합니다. - 경제학과 95학년 여학우일동

■축하해주세요! 디더이 저와 지연이가 뽐뽐한지 300일이네요. 10월6일이네요.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10월4일은 제친구 수남이(웅생파)의 생일이에요. 수남아! 생일 축하해.

동/약/광/장

■우미라 '95들이 힘내게 해주세요 - 우리말 '95년세

■하이텔 DGU off모임 30일오후 4시 학생회관 로비 많이 많이 나오세요.

■DUBS에게 감사드립니다. 컴공과 성취세와 인연을 맺어준것을.

■해바라기의 죽음을 성공적인 죽음으로 이끌기위해 우리모두는 힘으로 끌어아 했대.

■나는 TIME만이 좋다. 왜 재미있으니까!

■아름아!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아! 형! 누나! 좋겠다!! 나빠고. 연극보는 재미 끝내줬대.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온방골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우미라! 아름다운 새 피양새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보았으면 좋았을걸 - 잘 지내도록해. 행복하게.

축하합니다

■국대 '에오리자'정기공연 축하합니다.

■제2회 한울재를 축하하며 집행부 여러분 수고많으셨어요. 보다 나은 동아리로의 발전을 빌며

■Newsweek 4학년 고별 발표 축하합니다

■同志동문회의 졸업식 환영식을 축하합니다.

■불휘 포항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샘 영미의 생일이 어제 30일이었는데요. 노는 날이어서 축하 못했는데 진짜로 축하해요. 그리고 행복하시구요.

■울샘 영미의 생일이 어제 30일이었는데요. 노는 날이어서 축하 못했는데 진짜로 축하해요. 그리고 행복하시구요.

■울샘 영미의 생일이 어제 30일이었는데요. 노는 날이어서 축하 못했는데 진짜로 축하해요. 그리고 행복하시구요.

■울샘 영미의 생일이 어제 30일이었는데요. 노는 날이어서 축하 못했는데 진짜로 축하해요. 그리고 행복하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라형 수고하소. 갑자기 세가만 얼굴이 멍멍이 보이오. 함든 투쟁이지만 그래도 형이 해아 할말! 우리 승리하는 날 소주한 잔 합시다.

■총여 집부님 수고하셔요. 26일 세미나 한다고 유뻐요. 열심히 들고 보고 했어요.

■생물학과 학습제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 많았대요

■인문대 학생회장님 끝까지 열심히 수고하셔요.

■회장님을 사랑하는 한 인문학자가

알립니다

■10월 4일 언·협 공청회가 있습니다.

■10월 4일 언·협 공청회가 있습니다.

■10월 4일 언·협 공청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새로운 대학 노동신문의 앞길에 열정이 빛나길 기원하며 민·노·총 후원단의 협조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서시길 빌며 우리 모두 열심히

■지나 토요일 M·T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전·사·연을 살아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울샘과 해방동들의 공연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10월10일 공연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주은아, 은주아, 선애야 열심히 살자.

■L.T간고과 상경했다가 사고친 희영이가 빨리 완쾌되길 빌어요.

■통영동문회 무사히 끝났군요. 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선배동기 여러분의 단합을 기대하며

■확실한 대안없는 말로만 하는 학부제 반대한다

■확실한 대안없는 말로만 하는 학부제 반대한다

■확실한 대안없는 말로만 하는 학부제 반대한다

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을 보고 내국세 협상 양보...주권침해로 배격했어야

한미자동차협상이 가까스로 파결됨으로써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 지정과 WTO제소 등 극단의 사태로까지 진전은 되지 않게 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협상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협상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탄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전부터 미국 자동차산업의 Big 3를 통하여 언론에 한국 시장의 폐쇄성과 불공정한 시장관행에 대한 공격을 펼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퍼301조와 WTO제소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안은 협상전부터 누구를 협상의 수석대표로 하느냐의 문제로 국무부와 통상산업부간 다툼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어느 부처에서 주도권을 잡고 협상준비에 재대로 착수할 수 없었다.

WTO가 국제무역기구로 정식 성립되어 힘에 의한 지배로부터 벗어나 규범에 의한 국제무역의 지배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은 자국법에 의한 대외 제재수단인 수퍼301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의 대일 자동차협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한국을 '제2의 일본'이라는 파격으로 공식적으로 선정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국이 산업의 경쟁력면에서 있어서나 자본·기술적인면에서나 '제2의 일본'이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미국이 대일협상시 주목했던 무역수지의 문제가 한국의 경우는 현재 적자를 보이고 있고 향후로도 단기적으로는 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번의 한미자동차협상에서 한국 협상팀의 문제는 어떻게 파쇄적 역제라는 순수 국내 조세금융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동차부문에 대한 차등과세를 협상 의제로 구분됨을 용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협상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차라리 판세라면 금년 초에



곽노성
경상대 무역학과교수·국제경제학

양보했다더라도 추후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내국세인 지방세와 교육세를 협상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단호히 배격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내국세가 GATT의 기본원칙인 내국대우를 위반하여 외국차를 명시적으로 차별하였던 말인가? 협상은 관공행이 아니다. 워싱턴의 워터게이트호텔에서 회담장까지 신뢰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 이번의 협상에서 5가지 이슈에 대한 장단기적 경제효과를 계산하여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양보하여야 미국의 요구가 충족되며 어느 부분을 꼭 지켜야 하겠다는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하고 싶다. 혹시 우리는 주장을 하나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의 공격에 방어만하다가 덜 양보했다고 만족한 승리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분명히 1981년부터 미국은 일본자동차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라는 회색조치로 수입규제를 해 왔으며 그 당시에도 미행정부의 위에는 Big 3가 있었다. 왜 미국은 한국의 도로사정이나 주차 및 경제사정에 맞는 소형차를 생산하여 공급하지 못하는가? 과연 한국의 대형차 차시장을 열면 미국차가 한국의 대형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담배의 경우처럼 시장개방이 일본담배의 시장점유율만 높게 해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과 반증자료로 우리도 공격용 요구서(request list)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

어야 했다. 이러한 양자간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패키지딜을 하여야만 협상의 상호이익(gains from negotiation)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정부에서 협상팀의 일원으로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당시의 협상준비 분위기와 정부내 사정을 반성하며 몇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과 같은 양자협상시 협상의 수석대표 선정문제가 지난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단기적인 부처간 할당문제와 중장기적인 협상부서의 설정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 부처에 관련된 사항이 협상이슈로 등장했을 경우 외무부가, 경제관련 여러부처를 포함하는 사항은 재정경제원이 협상의 수석대표 하도록 하고 부처고유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장부처로 하도록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격을 분산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책이나 규범이 국제규범에 맞추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규범의 국제기준에의 합치추이를 보아가며 협상을 담당할 전문가로서 국무부대

표부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정부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일반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함으로써 협상에 가장 중요한 사안별 협상사(史)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협상기술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독립부서로서 협상대표부 설립은 협상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관련부서에 단 근무함으로써 오는 부처내 승진누락에 따른 사기저하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전문인력의 육성문제이다. 이제까지와 같은 일반공무원중에서 협상자를 선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상을 전문으로 담당하기 위한 통상직 공무원을 대폭 육성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고시중 통상직렬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국제법학사 등 전문인력을 과감히 스카우트해서 외부출원 또는 활성화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협상사안별 예상성과의 평가는 공무원으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대학, 연구소 등 장기직이며 근본적인 연구가 가능한 전문가를 프로젝트 또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협상태도와 관련하여 보면 이제까지의 양자협상에서는 주로 방어용 답변자료만 준비하여 사정하고 해명하는데 그친 바가 많았다. 여차와 UR협상에서 양보할 만한 것은 다 양보했으며 규범의 국제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에는 공격용 질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준비할 시점에 와 있다. 최선의 방어는 함이 영(聲)에 지나지 않지만 요구사항의 상호교환은 양함(陽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R협상에서 언론과 정부, 학계 및 업계에서의 공동대응으로 시장각분야(audio-visual area)의 상업주의로부터 끝까지 예술의 순수성을 지켜낸 프랑스의 예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설

집중적인 논의의 자리를

본교의 내년 96년 학부제 실시방침에 따른 학내진동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학생회측이 총장실과 각과대 학생실 점거농성에 들어감으로써 극단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학부제실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학교당국과 일단 유보하고보자는 학생회측이 맹목히 맞서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개적이고 충분한 학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에따른 반발은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그런점에서 지난27일 진행한 학부제에 대한 학교측의 설명회는 많은 아쉬움을 주고있다.

일단 내년 학부제 실시를 전제로 한 학교측의 설명회는 학내주체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고 집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자체를 막으려했던 학생측 또한 비난을 면치 못했다.

본교는 대학원중심대학을 지향함을 표방했다. 연구중심대학에서 학부제가 유리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학부제 실시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권과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게 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해 대학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한 한번의 선택이 장래를 거의 좌우하는 현행제도에서 전공선택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교수승진등 인건 수입집 형성,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본교는 학부제실시에 관해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왔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학내주체들과 활발한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지금이라도 후속적인 보완작업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행정력 계통을 통한 정책시달적 논의과정에 국한되어 실질수요자인 학생의 참여부분이 미흡했음을 반성해야 하겠다. 본지 제1159호(94년 10월26일자)에서는 내년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겠다고 학교측 발표를 게재한 바 있으며, 학교측은 일찍이 94년11월 학과조정 연구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연구중이었음을 알렸던 사실이다. 또한, 1167호(95년 3월1일자)송충장 인터뷰에서 송충장은 학부제 실시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금년 학교측의 확정적 발표에 즈음하여 각 주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과 구조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교육부의 임시요강 확정일정이 급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일단 학부제를 실시하느냐, 미느냐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자. 새롭게 집중적인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우수신입생의 유치, 교육부 재정지원 확보 등의 실질적 문제도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 지금 각 주체들이 명분론에 매달리기 보다는 보다 대국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학부제 실시가 동국의 발전모색, 진정한 동국의 특성화방안에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 강구를 허심탄화하게 모색하자.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 논란

복지부 장기적 안목 결여·불신감 가중 한의학 발전·독자성 보장돼야

93년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발달 정책' 후퇴사상으로 한약제도 도입, 공중보전 한의사제도 실시, 한의학 적 접의료보현 실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 지난 9월16일 93년의 약속을 뒤엎은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를 발

표해 한의학계에 큰 반발을 사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양약학의 학문적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한약학과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의사를 밝혔으나 전국한 의대연합(의장=이동욱·본교 2분·

이하 전한련)은 "93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한 의학을 의학에 종속시키려는 의료 일원화 제시"라며 반발했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약 발전정책 협의회를 발족, "한방 의약본원의 구체적 내용과 실시시기, 한의관련 전문인력 수급계획, 한약의 규제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등을 앞으로 2년동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약학과를 약대내에 설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월권"이라며 지역별 회원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에 있으며, 약사회는 "한약사제도폐지를 위한 약사법 재개정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약본정의 장기화 조짐을 표출했다.

한편 전국11개 한의과 대학에서는 전한련을 주축으로 지난 9월18 일부러 무원칙한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무기한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총선 표발관리를 위한 정책변경은 분명 잘못"이라며 "올해안에 한 의학과는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단지 어느 단대에 포함 시키느냐가 문제이다"라고 전한련 의장 이영욱 군은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파업에 대한 구성인자의 인식이다.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과는 달리 투쟁의 방향과 파업의 필요성은 인식시키지 못했고 파업의 근본목표도 한의학의 발전과 독자성 보장이지 한약학과 설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

국민 홍보'라는 투쟁방향으로 복지 부 안팎의 비효성을 알려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한약학과 설치와 관련 해 한약조제시험을 약사법령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하고 첫 시험은 오는 12월중에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력과 시설장비, 한의학과 약학의 공동연구 가능성 고려등을 전제로 한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에 복지부의 장기적 안목 결여와 전 한 의학과,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한약학과 설치 문제는 서로의 이익적 발상에서 벗어나 한걸음 앞선 생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송선영기자)

동국만평

이영일



개교90주년기념 기약광고 ①

1986~1996

90세 청년 - 동국을 보여주자

개교 90주년 기념 엠블렘 및 표어 현상 공모

2006, 개교 100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90살 청년 동국을
보여주는 표어와 엠블렘을 공모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
21세기를 향한 발전의지 등을
가득 담아 응모해 주십시오

당선작은 개교 90주년 공식 엠블렘과 표어로
사용됩니다.

1995년 9월 25일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

● 현상공모안내

응모대상	엠블렘	표어
작품내용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문, 교직원, 일반인 90년 역사를 함축하고 미래동국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원색 상징 도안	• 9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 • 21세기(또는 개교 100주년)을 향한 동국발전의 의지를 담은 내용 •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을 함축한 내용
작품형식	A4 사이즈의 화판에 4원색 이내로 직접 도안 또는 컴퓨터그래픽 출력물로 제출	각 교회과 등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에 20자 이내로 적어서 제출
제출기한	1995. 10. 20(금)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할 수 있음)	1995. 10. 13(금)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할 수 있음)
시상내용	당선작(1작품): 100만원 가작(2작품): 각 30만원	당선작(1작품): 50만원 가작(2작품): 각 20만원
제출처	동대신문사(학생회관),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본관4층)	
심사위원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에서 별도위촉	
발표 및 시상식	1995년 11월중 동대신문에 발표, 시상식은 발표시에 공고함	

*문의: 260-3792~4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노동약법 제정기도를 막아내자

노동현실 악화·노동자 무관심 초래 지배권력의 노동자 희생책동 투쟁으로 저지해야

이 봉 우
(구로노동연구소 소장)

7~80년대 우리들은 노동조합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노동조합은 시민적 권리의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이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구속과 수배, 고문과 구타, 각종 이데올로기적 매도와 립지를 당해야 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런 통탄의 역사를 뒤집는 노동자들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문민정부...

우리 노동자들은 그 무슨 대단한 변화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우호측순처럼 나온 각종 시민운동들이 주장하는 시민적 권리의 최소선이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주어지길 원했다. 하지만 아직 요원한 바램이 점차, 아니 이미 중병에 걸렸다. 김영삼정권은 초기부터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척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히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각종 노동단체들이 부활 자황되기 시작했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자본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포위 타격하고 있다. 최초의 사례가 현대자동차에 강행된 적권중재이며 그 이후 한국통신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내란으로 매도하며 벌인 탄압, 최근에 모든 정의신고마다 불어나

오는 행정지도까지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신중 노동운동 탄압책들이 줄줄이 나와 노동자의 혼신을 높이고 있다. 이런 노동자의 신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번의 대사면이다. 5·6공 비리자들과 김영삼의 표적수사의 대상들은 대폭 석방하면서(상징적으로 김선명 선생을 석방했지만)노동자는 수백명의 구속자 중에서 겨우 2~3명의 석방에 그쳤다. 참으로 갈수록 각박한 세월들이다.

김영삼정권이 노동법을 개정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답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매년 정기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의 공약이 되었다.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정 요구의 핵심은 자주적 단결권의 확보였다. 제3차개임금지조항, 복수노조금지조항, 정치활동의 자유, 정의조정법의 개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정권과 자본은 이런 차원을 적당히 수렴하면서 집요하게 개별적 노사관계 특히 현장내 노조의 개입 차단을 노리는 노동법 조항의 개악을 요구하였다. 이런 차원이 적당히 쉬이면서 노동법 개정이 논의되어 왔지만 들어 노동법개정은 전면 유보되어 있고 김영삼정권의 임기중에는 기대만큼의 향방이 없고 있다. 그리고는 자본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담은 새로운 노동약법의 이름만이 신문지상을 요란하게 장식하고

있다. 사실 김영삼정권은 이미 실제적인 노동법 개악을 했다. 노동법 개악의 최종 주자는 법원이었다. 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은 그 판결을 통해 이미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법적 결제를 무너뜨렸고,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한 판결을 수도 없이 내렸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의도한 노동법 개악은 사법부가 이미 다했다는 자조적인 추념이 들기도 했다.

노동조건을 실제로 개악시키는 두번째 주자는 노동부다. 최근에 대구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노동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극적 사례이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생리휴가를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사용자측이 생리를 실제로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부가 이미 사용자 판치는 오해되었지만 그 정도가 더욱 커져 우리나라는 헌법위에 법을 있고 법률위에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게 되었다.

세번째는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쟁의를 다루는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은 쟁의마다 행정지도를 달고 앞선, 조정을 달고 있다. 행정지도도 1~2일 후에 별각기간 중 시정조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꼬박

10일의 별각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림으로써 실제 쟁의 별각기간을 20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노동쟁의는 법적으로 신고제이지만 노동위원회에 의해 허가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각종 개악이 현실화된 상황이 뛰어나거나 이른바 노동3제는 노동의 현실을 더욱 심한 지옥으로 만들것이야 확실하다. 정부는 상공부의 발의로 중소기업자를 위해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병행근로 시간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언론과 노동계가 반발하자 올해는 근로자 파견제만이라도 관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노조진입자의 축소와 전입자의 임금에 대한 박탈, 단문과 파견제에 의한 2중 3중의 고용불안을 안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삶은 배제된 채 자본의 논리만 생경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노동약법의 제정의 가장 큰 이유가 이른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지원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독점개발 중심의 경제정책과 그 구조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막무가니로 현 정권은 중소기업자에게 노동자에 대한 수탈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말라죽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렇듯 시민민주주의는 그 싹도 보기에 소멸했다.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에서 시민운동 운동은 그만 아니게 사기이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민중운동이다. 독재정권의 기반으로 집권한 현 지배권력이 중소기업을 파괴하는 다른 보수정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노동자 희생책동에 대하여 우리 민중 그리고 노동자들은 단지 투쟁만으로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전 민중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탈 지역감정

“학살자 처벌엔 영호남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 진실을 밝혀내십시오”

지난 23일 오후 3시 비가오는 가운데 전남대엔 ‘영호남청년학생대회’에 참석키 위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환영식 중 영남지역 신입생을 대표한 한 여학생은 “안녕하십니까, 학살자의 고향에 태어나 이렇게 혁명의 도시 광주에 오니 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제가 대신해서라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며 광주에 온 소감을 밝혔다.

과거 일제시대 국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지역감정이 시대흐름 속에서도 정권의 지배패권, 지역동맹 등으로 인해 지역분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역분할타파를 위해 5·18의 무고한 희생자 처벌을 위해 모인 영호남청년학생대회를 끝낸후 짧은 이들이었지만 호남학생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다.

“어릴적부터 호남인이라면 편히 색안경을 끼고 보곤 했어요. 그런데 이별개와서 시내에서 직접 광주시민과 만나 얘기해보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편견을 반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이다.

광주시민의 가슴에 비수를 맞히게 한 사건 5·18.

(이현주 기자)

달라진 95하반기 채용시험

필기 축소·폐지, 적성·면접 중시 상시공채제도·첨단채용시스템 등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전공, 상식 등의 필기시험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대신 대부분의 그룹이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을 새로운 신입사원 전형방법으로 결정하는 등 채용방식에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영역시험도 대부분 토익(TOEIC)성적으로 대체되고 서류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과거의 통과여과가 아니라 당락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판문이 된다. 서류 전형에서는 대학 재학시의 성적과 사회 봉사활동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면접 시험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그룹은 그동안 임원급이 합치려 실시하던 면접을 두차례 이상으로 늘렸고 또한 실무 부서장, 부과장급도 면접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다양화 하는 추세다.

그리고 올해 입사 시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삼성의 학력제한 철폐이다. 삼성은 종전 대졸 채용에서 3급사원 채용으로 전환한다.

이와같이 기업들이 필기시험 성적이나 학점보다 면접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세계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단순히 머릿속에 든 지식보다는 활동력, 도전의식, 책임감·품성·인성 등에 뛰어난 전인적 인재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또 정부의 '5·31'교육개혁안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다양성과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업에 대해서도 시험중심의 채용제도를 교육개혁안과 부합되도록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업들 또한 세계화라는 물결을 감안해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라는 설명이다.

취업전선의 변화는 정기공채와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상시공채가 새로운 채용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는가 하면 인터넷 등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의 첨단화로 공간 파괴까지 이어



95학년도 하반기 취업특강

질 전망이다. 이와같이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어느때보다도 취업일문을 담당하는 취업과는 물론 취업준비생들의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요청된다.

금년에 필기시험을 보는 기업은 한진, 금호, LG, 고합, 진로, 두산, 한일 등이고 필기시험을 안보는 기업은 삼성, 선경, 현대, 쌍용, 롯데, 기아 등이다.

김혁배
(학생처 취업계장)

대기업이 내놓은 달라진 입사시험, 이로인해 지난 25일 치러진 토익시험은 작년과 비교해 5배나 늘어난 인원이 지원했으며, 대규모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와 취업준비생들로 붐볐다.

현재 바뀐 시험은 크게 토익, 직무적성 및 인성적성검사, 면접 등이 일반적이다. 이중 가장 크게 달라지고 중요한 것은 면접이다.

면접의 경우 각기업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른 저를 입사시험변경에서 중점을 둔

95채용시험의 문제점

변화된 시험에 적응기회 부재 대학교육 정상화 기여는 미지수

학력제한철폐가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지방대생, 비명문대생, 여대생의 취업기회를 더욱더 좁여줄 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예로 경주위의 경우 대다수의 취업준비생이 새로이 바뀐 입사시험에 정보부족 등으로 적응하기 포기하고 과거와 시험변화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변형된 입사시험을 잘 적응하기 위해선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입사 희망기업의 선정을 끝마쳐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차이를 둔 기업의 특성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다.

과거 입사시험의 경우 대학교 2학년때부터 준비를 하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등 현실과 괴리된 특성의 공부만 해 온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개선된 개혁안이 대학교육정상화

를 도모한다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적응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갑자기 변형된 시험에 현 지원자들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토익시험을 준비하지 못해 토익시험을 많이 쳐보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서울권의 졸업위가 조사한 설문조사의 경우 60% 이상이 일반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달라진 입사시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좀더 학력박람회다 전문성, 개성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구하고자 노력하며 공평성을 기해 선출할때, 기업들은 단지 이미지를 위해 입사제도를 변경 도입했다는 비난을 듣지않을 것이다.

(이현주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한걸음 갈때 다섯계단 오른다.

이병래 이사 '77년 정밀기계과 졸업 삼성코닝 해외무브먼트 담당이사

소재산업의 성패가 미래산업을 좌우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
소재산업분야에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재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미래를 창조해내는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페라이트, 파인세라믹스, LCD용 정밀평판유리, 바로 세계속에서 승자는 삼성코닝의 자량이자 저의 자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발해야 할 첨단소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코닝으로 오십시오. 삼성코닝에서의 한 걸음이라면 다른 곳에서의 다섯 걸음과 같은 것이니까요!

삼성코닝에서 출발하십시오. 전세계TV브라운관 유리 5개중 1개는 삼성코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세라믹 기술로 21세기를 여는 첨단소재 개척자 삼성코닝— 삼성코닝은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인 세라믹을 비롯 세계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브라운관용 유리, LCD용 정밀평판유리(세계점유율16%), VTR용 로터리트랜스포머(세계점유율26%)등을 생산, 세계 전자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삼성코닝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디스크 등에서 세계 최우수 합성경영 회사로 선정, 95산업기술혁신상 통상산업부 장관상 수상

삼성코닝

탈

수

습

거

“자신의 주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을때 참된 주인의 의미를 갖는 것 아닐까”

뉘뉘리는 접어두자. 정기자로서의
힘겨운 싸움이 앞으로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가...

동대신문사 생활에서 내가 목
표로 삼은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인간이 되
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투쟁이자
나의 투쟁이며, 나의 존재를 확
인하는 길일지라.

지난 6개월간의 전투, 만족스럽
지는 않지만 나는 버텼고 탈수
습이라는 전리품을 얻어냈다. 그
리고 이제 앞으로 치뤄질 전투에
대비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전투는 어떠한가. 내에
게 강요되는 의무와 상반된 주장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리저
리 회피하고 변명도 해 보았지만
결코 효과적이지 못했다. 합리화
와 상대적 개념만을 늘어놓은 채
로는 절대로 나를 이길수 없었다.
나의 싸움,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으로 설 수 있느냐' '플고 가느냐
플러 가느냐'의 싸움에서 내 스스
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로
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과 치열한 고민
속에 나 젊은 전사는 수습이라는

고지를 밟고 섰다. 하지만 그 가
간동안 그때의 시간의 흐름을 너
무나 재촉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안다. 내가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정기자라는
자격도 주어졌다. 그에 따른 지위
와 책임도 함께.

나에게 주어진 질문들을 향해
도전한다. 아직은 모른다고 말하
고 싶다. 배우고 깨우치고 포용하
며 고민하겠다. 하지만 한쪽으로
만 치우쳐진 사고방식을 옹호하
지는 않겠다. 나 자신의 평안을
평계로 거짓을 말하여 진리를 부
디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
리고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는 무
의미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나의 주관을 갖고
삶의 주체로서 서게했을 때, 난
세상을 향해 질문하리라. 이해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던 고
민들에 관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
"문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뉘냐나 뉘니까"를 인용한
광고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구는 나의 심장을 진동했다.
주인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주



◇김희동 기자

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을때
참된 주인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확신이나 신념은 커녕 주
관조차 없이 살아가는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며 난 내일도 동대신
문사의 문을 열 것이다.

(문과대 영문과)

“수습기간의 배움은 나의 두터운 버팀목이 되어 난 독하게 살수 있을게다”

마냥 앞만보며 달려온것 같다.
거침없이 력력대는 소리와 함께,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망각한
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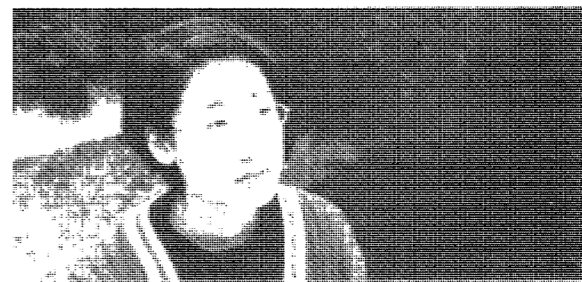
이제 시간은 탈수습에 이른 나
에게 그 해답을 요구할게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했던
가!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선
택한 신문사에 두려움과 설레임
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기자라는
두근거림이 어느덧 찾아온듯 하
다.

신문사! 신문사는 조금의 오보
도 허용할수 없는 완벽한 기사를
원했고 억지 논리에 말려 들어
가지 않을 날카로운 논변을 원했
고, 기열찬 불타움을 원했다. 그러
기에 난 너무나도 미숙한 기사,
서투른 취재로 나의 생활은 시행
착오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난 당
연히 깨지고 또 깨져야만 했다.

수습기간동안에 남한 우선 나 자
신을 깨부수기 위해 전념해야만
했던 것이다.

많은 고민없이 무의미하게 보
낸 나의 사고의 안일하게 버티고
있는 움직임 없는 행동, 터질것
같은 교만과 권경으로 가득찬 나
를 거둬내고 인내의 쓴맛을 알고
고독의 외로움을 배우고 정의가
무엇인지 깨우쳐야만 했다.



◇허민희 기자

멈추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며
자신을 흔들려 깨워 도약의 자세
를 가다듬게 했던 동대신문사의
수습기간들.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지라도 이 기간
들의 배움은 두터운 나의 버팀목
이 되어 독하게 난 살아나갈수
있을게다.

그동안 고뇌와 아픔을 탈수습
기 저편에 고스란히 기억한채 조
심스레 정기자의 출발선에 서려
한다.

정기자가 되기위해 거쳐야만
했던 과정, 그 과정속에 다져야만
했던 슬한 다짐들,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정기자로 임하는 지금 더
힘든 벽창이 느껴진다.

그건 아마 정기자로서 외쳐야
할 나의 기사에 3만독자와 너자

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함이
기에.

나는 최고의 기자가 되기 위해
서는 소외된 삶의 뿌리들을 삼켜
서서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세에서 이제
시작하자! 드디어 뉘뉘리를 지우
고 자유롭게 책임을 등지고 바
깁 공간을 향하자!

단,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 하
지 않고 구름에 눈여기지 않고
신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정의를 겁없이 부르짖을수
있는 진정한 대학 신문기자가 되
고자 한다.

앞으로 펼쳐질 무수히 많은 험
난한 길들, 그 속에서의 파헤쳐
나갈 나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나
자신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본
다. (인문대 사회복지학과)

“방황과 고민이 한치 앞을 더 볼수 있게 이면을 더 깊게 파고들게 할 줄이야”

인생이란 세상에 걸들여 짐이
라란 문구가 대학 초기생활의 작
은 결론이었다. 이 결론을 깨기위
해 신문사에 문을 두드렸고 어느
덧 기자생활 6개월이 흘렀다.

지금은 어른을 형성시켜야 할
언론이 도리어 어른을 쫓아가고
있는 내 기자생활에 남다른 고민
을 하고있다.

내가 맡은 출몰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있는 집회에 취재를 하
러 간 내가 도리어 이팔청년이나
인터부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
고 수습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고
생이나 고생도 겪었다.

언제부턴가 가슴속엔 포기란
단어가 자리잡고 있었고 '언제까
지 이러한 상황에 처할까' 나름대
로의 방향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
만 이러한 방황과 고민이 한치
앞을 더 볼 수 있게, 이면을 더깊
게 파고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줄
이야.

수습시절의 고민과 방황이야말
로 참된 기자가 되기 위한 누구
나 겪어야 할 흔적과 같은 것이
리라.

지금은 동대인들에게 문제의식
을 던져줄 기사 한줄을 쓰기위한

의무를 짚어 질 때다. 동대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냉혹한 질타가 있
기 때문에, 이같이 애정어린 관심
으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내사
명은 발이 부러지는 일이 있더라
도 더 뛰고, 더 보고, 더 듣고, 기
사를 쓰는 것이 필수밖에 없다.
날짜, 이름, 토씨 하나라도 정확히
쓰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내 조그만 신념. 그들
에게 생각없는 결함기사의 기사
는 쓰지 말아야겠다는 신념 뒷일
까.

기사에 맞는 적당한 단어 하나
를 고르기위해 지난 동대신문과
국어사전을 찾고 선배들과 동기
와 토론한 시간만 해도 거뜬히
소설 태백산맥쯤은 읽었을 법도
하다. 원고지 한장을 채우기 위해
10장, 20장을 쓰고 원고지 세장에
당하는 기사로 밤새운 지난 시절.

의무에 대한 슬한 고민과 방황
으로 탈수습시대에 와있는 이 시
기까지 난 몇번이나 거듭 태어났
고 그래야 한다. 언젠 백조가 되
어버린지도 모르는 미운 오리새
끼처럼 소리의 탈을 벗어버리고,
어느새 성숙해버린 백조와같이
지난 시절의 역경을 화려한 날개



◇한상운 기자

짓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수많
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자유에
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배뺨용
처럼 동국을 짊어질 정기자로서
의 책임으로 말이다.

(문과대 일문과)

“나의 일부가 지면에 배어 나오기에... 올바른 세계관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습이란 두 글자를 되새기며
...

나 자신에 대해 한번 더 생각
해 볼 수 있었고 나와는 다른 생
각을 공유하도록 했었던 신문사.

이제 수습의 마지막 문턱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보려 한다.

나 자신에게 앞서 동대 신문
사란 이미지에 자신을 감춰야 했
던 수습시절, 어느새 나도 이곳에
점점 융화되어 가는지 예민까?

하나의 기사가 있는 곳이라면
3만 독자와 나를 지켜보는 사람
을 위해 어느 곳든지 달려 가
야했고 오자 하나 용납 못하는
신문사였지만 그런것들이 모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
다.

내 생활의 책임이랄것 느껴보
지 못한채 그저 어린소녀의 동경
쯤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신문사
는 큰 착오라는 것을 일깨워 줬
고 기자로서의 나를 좀더 성숙시
켜주었다.

난생처음 집회라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학생들의 열정을 함께
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자라는 의
무감에 그저 지켜보아 했던 안타
까움.



◇조인선 기자

어떤 글이라도 기사가 쓰는 글
은 당연히 논평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논평의 대상이 됐기에 비판
도 또한 즐길줄 알아야 했다.

이제 나는 결민의 힘겨움이 아
닌 내부의 힘겨움을 겪으려 한다.
지난날의 시련보다 앞으로의
일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도
내가 이곳에 이루어 놓은 만큼
열심히 계단을 밟아 가리라. 설령
계단에서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밟아갈 계단이 더 많기에 부지런
히 하나씩 밟아 갈 것이다.

밤을 새워가며 신문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의 일부가 지면속에
배어 나오기에 나는 신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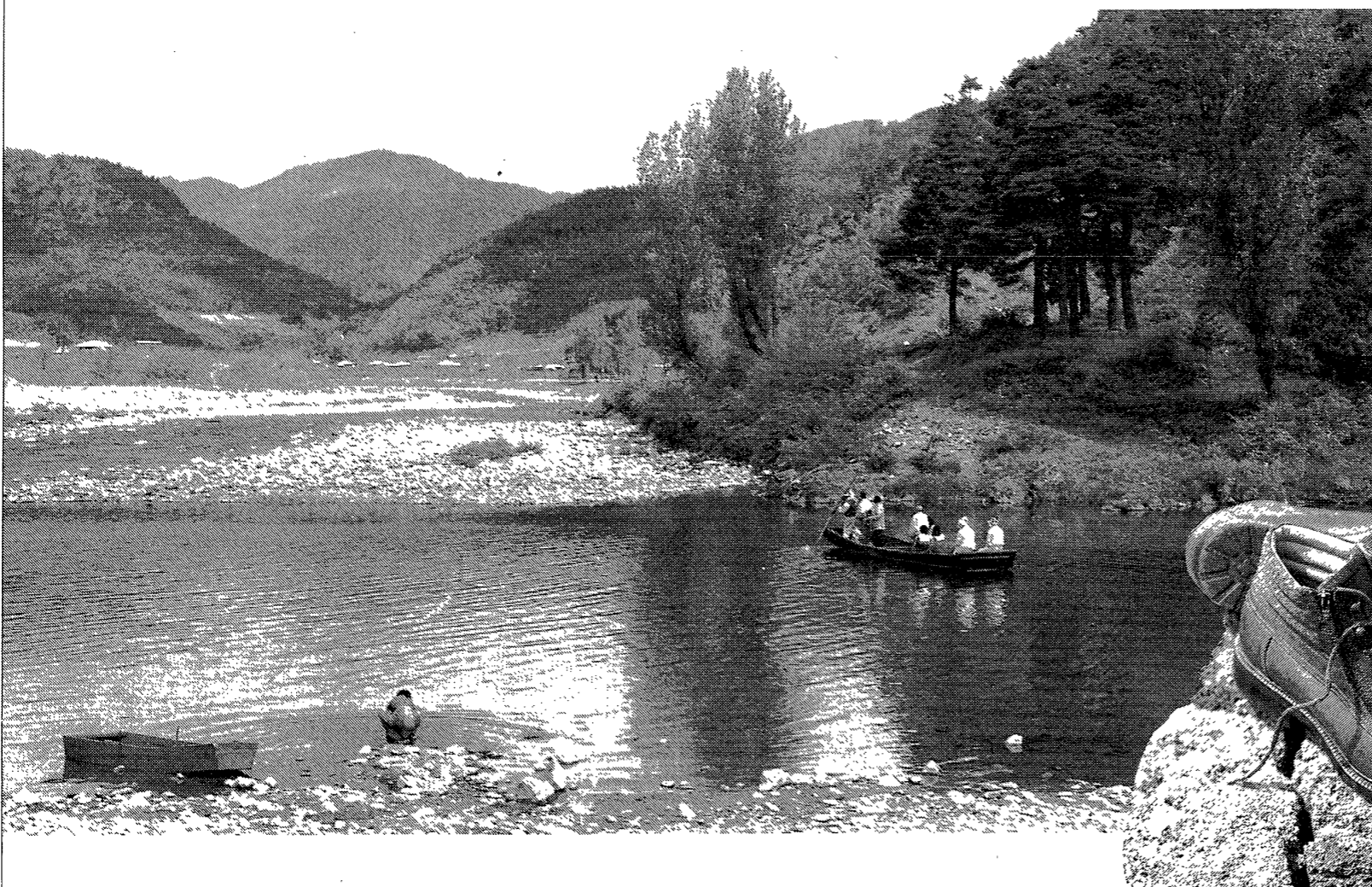
책임을 가져야 한다.
누가 보아도 기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
지며 사물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야 한다.

독자들에게 단순히 읽혀지기
보단 읽을수록 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색들은 여러가지 혼합하면 혼
탁한 색이 나온다. 하지만 나를
 통해 나오는 색들은 빛깔있고 경
이로운 색일 것이다. 나는 빛나고
강한 글을 창출하리라. 어느 누구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글을.

(자연대 과교과)

버팔로가 함께 하는 자연의 개발전 ③-경원도 정선 아우라지강



첩첩산중에 가뉘든 애절한 한세상 굽이치는 물길, 아우라지강이여.

오대산줄기를 굽이굽이 맴돌아 흘러내리는 승천, 태백산 줄기를
타고 유유히 내려오는 골지천이 만나 하나로 아우라지는 곳-
돌아보면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한세상, 가슴에 쌓인 시련들을
부어내고 훌훌히 남는 첩첩산중, 병풍장을 떠나 달빛 산길을 숲속
간담 효석의 '메밀꽃밭' 이이즈음일까.恨이 쌓여 억막이 되어도
세상을 탓하지 않는 선비의 강직함으로 지친 이 깊은 골을 지도조자
숨겨 버린다.

“너무 아름다워 천연하게 느껴지는 신지락”을 감아도는 정선아리랑의
구슬픈 가락과 태고의 선비와 손수를 그때로 간직한 땅, 아우라지-
마지막 남은 신천지로 우리들 가슴에 살아숨신다.
내속에 고민 하늘과 땅을 열어줄 수 많은 사람을 기다리며 삶의
고난을 이긴 모든 이의 가슴으로 다시 돌아오라, 아우라지여.

자연의 향한 젊음의 발걸-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토양배양의 명가
금강산 488

'5·18' 특별법 제정 요구 절정 동맹휴업 및 대규모집회 열려

본교를 비롯한 전국 1백여개 대학의 학생 수습반명이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9·30일 이틀간 동맹휴업 및 산발적 대규모집회를 열었다.

본교는 학살자 처벌과 관련해 전제학생대표회의를 통해 동맹휴업 등을 결의하고 지난달(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 지지단식까지 포함해 총학생회장 안진우(국교4)를 비롯한 1백여명의 학생들이 단식을 하는 한편 서명운동, 27·28일 총투표를 통해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또 본교는 지난 29일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1만 동야 총결기를 6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한 후 증문을 통해 진술하러다 전경과 대치, 몇 차례의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방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시위했다.

이후 본교생들은 교내 집회를 마치고 나온 서충현소속 2만여명의 학생들과 합세, 오후 6시부터 울 지로와 종로, 대학로 등지에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로 인해 주위의 시민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있기도 했다.

또 '학살자 처벌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가 본교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창충당공원에서 열렸다.

학교, 학부제안 발표 단대학생회 학장실 점거농성...실시유보 요구

96학년도부터 각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학부제로 선발키로 논의됨에 따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준비없는 계열화 반대'를 주장하며 학장실을 점거하는 등 학교 방침에 반발을 하고 있다.

각 단과대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불교대학생회(회장=김민성·불교4)는 학생의견을 제외한 계열화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에 대표자회의를 거친 후 학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불교대 학생회는 불교대학 발전위원회를 통한 학문구조 재조정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문과대
문과대학생회(회장=최수일·국문4)는 지난 9월 27일 학장실을 점거했다.

학부제 반대집회를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중, 2부 학생회장과 7개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문과대 학장과의 면담을 요청, 받아들여졌으나 면담도 증 일어난 의견대로 학장실 점거까지 이어졌다.

문과대 학생회장 최수일군이 문과대학장에게 학부제 추진상황을 질문하자 학과장은 "아직 결정단계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 학생회가 부변에 관한 질문에서는 자리에 함께 했던 한교수가 "교수, 학

교의 입장에서 학생을 위한 행정을 준비하는 것이지 피교육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대화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과대
이과대학생회(회장=박동민·물리4)는 지난 9월 26일 이과대 학장실을 방문해 단대학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학생회측은 "준비된 계획없는 무모한 계열화를 반대하고 계획을 미리 검토해놓고 실천, 강요하는 학교행정에 못마땅하다"며 "계열화에 관해 학생들의 참여, 논의와 같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과대학장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 단독이란 생각을 거두길 바란다"며 "사실상 개혁은 합동으로 개인적면은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마련이고 이번 학부제 시행에 있어 학생들 손해를 없애 반대는 없을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학생회측과 학교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면담을 끝낸 후 학생회측은 "우리의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학부제 반대 의지를 밝혔다.

법과대
법과대학생회(회장=나상원·법4)는 각 학년 과목을 통해 무원칙한 학부제 시행은 무리라며 학부제 추진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과대 학생회장 나상원군은 "법대 학생회장 나상원군은 '법대

가 학부제 모임을 제의해서 그런지 여론을 하나로 모아내기 힘들다'며 타단대와는 달리 학장실점거에 뚜렷한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대
경상대학생회(회장=서동우·무역4)는 지난 9월 26일 동국관앞에서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5·18학살자 처벌과 무원칙한 계열화반대에 관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무역학과 학생회장 이광우군은 "학생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계열화 모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대 학부모집에 찬성한 일부교수와 학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단식단 결의와 함께 동맹휴업결의가 있었다.

뒤이어 학생들은 학생참여 보장하고 준비없는 계열화를 반대한다며 학장실을 점거했다.

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과학대학생회(회장=박동혁·생명자원경제4)는 지난 9월 27일 무원칙한 학부제모집반대를 외치며 학장실점거에 들어갔다.

각 학과 과목을 통해 무원칙한 학부제는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결의, 이를 추진해 학장실을 점거했다.

생자대 학생들은 "학부제 모집이 철회될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공과대

공과대학생회(회장=김성현·산공4)는 지난 27일 학장실을 점거하고 9개학과 학생회장과 함께 계열화 모집에 대한 전제 교수, 학생의 총투표를 공과대학장에게 제안했다.

사범대

사범대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지난 22일 학교의 계열화 모집과 학과폐합 계획에 반대하며 사범대 학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사범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계열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범대 학생회는 계열화를 확실히 안하겠다고는 각서를 받지 않던 학장실 점거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술대

예술대학생회(회장=조진호·연영4)는 학부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학생회측은 "학부제를 하더라도 예술대의 경우엔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동국학술문화센터'준공에 따른 공간문제 연대투쟁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예술대 교수들의 입장은 학부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오늘(2일) 학생회측과 학과장이 학부제에 관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야간강좌

야간강좌총학생회는 중과, 계열화와 관련한 질의서를 학교측에 보낸 이후 이에 대한 긍정적 회신이 와 있어 학장실점거는 하지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생자대 고추판매 마무리

지난 25일까지 해화관 앞에서 실시된 생명자원과학대(회장=박동혁·생명자원경제4)와 지천농민회 주최의 '95농민사랑 고추판매'에서 2천여근이 판매됐다.

고추판매위원회측은 고추판매대응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추석이 빨리 온 탓에 고추판매가 시기상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추판매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이번행사를 통해 학생회 강화 측면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고추판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추판매에서 총 3천근 중 판매되지 못한 1천근은 농민회 지체에서 2차판매를 할 예정이다.

회사 설명회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여개 상화재보험 및 대립정보통신, (주)한라의 설명회가 오는 4일, 5일과 19일에 각각 실시된다.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현대해상화재보험=4일 오후 3시~5시(동국관 L301) △대립정보통신=5일 오후 2시~4시(동국관 L101) △(주)한라=19일 오후 2시~4시(동국관L101)

학전무대

변변한 개혁

○...대학가에서 불어 닳던 학부제 바람에 불살을 잃어있어, 다투어온 일선 고등학교 진학지도 선생님들.

대학입시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시험으로 바뀐 당시에도 난감하고 당혹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학부제 논의에는 아예 포기상태.

그때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은 바.

이쯤하면 교육소비자 위주의 개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너무 헛갈리지 않아요?

외면된 법칙

○...과과라!과과라!
동국관 앞 계단이 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네.

2학기를 맞아 대대적(?)공사로 급게 단장했던 동국관 앞 계단이 잘못된 공사로 비란 오면 '한강은 저리가라'라고.

낮아질것은 높고 높아야할 것은 낮으니 배수구는 있으나 마나.

이에 동국관 관방이 최고참이라는 한 학우 왈 "바야흐로 물은 높으면서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도 모르잖"

외도는 싫어

○...우째 이런일이?
보리수, 명진가든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데 사용할 귀중한 손들이 쓰레기통을 헤집고 있다네.

다들아나라 위 식당 앞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채 복합용 쓰레기통으로 전락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잔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이라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회전문대자가 직접 달려가 쓰레기통을 살펴보며 하는말 "쓰레기통마저 통합합..."

불협화음

○...세계 문화계의 시선이 집중된 비엔날레의 열풍속에 불만의 소리가 들려온다.

더듬어보니, 짧은 기간의 준비비효도 문제지만 전시면에서 대중과 교감이 어려운 미술이 중심이 되어 우리 것을 잃어버린 채 서양을 좇아갈려야 아우가 쏟아진다는데.

아니라 다들아 주제문구도 전 비엔날레에서 잠시(?) 빌려온 것이란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비엔날레는 진정 상투쓰고 양복입은 모양(?)"

직원노조 정기총회

감사보고 및 임금교섭 등 논의

'9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가 지난달(9월)28일 동국관(L301)에서 직원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이 있는 후 스즈카현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사업 시행 등 자기 개발과 진부도모를 위한 소모임 활성화 스교육개혁,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연대 활동 전개 등의 방향을 가진 2차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승인이 있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노사협의회 경과 보고가 있었고 안전토의인 '96년도 임금교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96년도 임금교섭에서의 기본 입장을 중점 15%, 중액 3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관리연구소

디시틀교수 초청강연회

경영관리 연구소(소장=최수원·경영학)는 독일 마하임 대학의 디시틀(Dichtl)교수를 초청, '세계시장을 향한 독일기업의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오늘(2일) 10시30분부터 한시간 가량 동국관(M209)에서 진행된다.

여학생부처, 동국알뜰장터 교환가능 물품 수집·판매

여학생부처(부처장=임돈희·사학)는 작년 '동과 알뜰장터'에 이어 환경보존운동의 일환으로 2학기중 실시 동국 알뜰 장터를 마련한다.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알뜰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계산관 앞에서 물품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계산관1층에 위치한 여학생부처장실에서 비누, 의류, 장신구를 비롯한 중고 컴퓨터, 도서등 교환가능한 모든 물품을 수시로 수집한다.

총 △10월 18일=비포 더 라인 △10월 25일= 작은이씨들이다.

금강관 공사 마무리단계

지난 8월 20일에 시작한 금강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위실, 복도, 창문, 주방등 약 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이번 금강관공사는 완공단계 95%에 이르렀다.

체육실의 한 관계자는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는 77년 이후 처음이라며 체육실을 사용하는 학생들 모두 좋아한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간이 협소하여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치 못한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화원서 영화상영

여학생부처(부처장=임돈희·사학)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3시에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상영하는 10월의 영화는 △10월 4일=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월 11일=성희

◇ 학부제 모형(안)

대학	해당학과	학부/학과	전공/학과	대학	해당학과	학부/학과	전공/학과
불교대학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신학과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신학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지원학과 산림지원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명자원경제학과	생명자원학부	식품지원학전공 산림지원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생명자원경제학전공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부	국어학전공 국문학전공 문예학전공		생물자원경제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수학과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국민윤리학과 수학전공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원유전공학과	화학-식품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원유공학전공
	경제학과 통계학과 회계학과 회계관리학과	자연과학부	통계학전공 경제학전공 회계학전공 회계관리학전공		화학공학과	신원-기계공학부	신원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원유공학전공
이과대학	물리학과 화학학과 지구과학과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지구과학전공	사범대학	지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지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부	법학전공		지구교육과	지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예수대학	미술학과	미술학부	미술학전공 한국화전공 조소전공 이론-연출전공 연기기술전공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정보관리학과	경영학부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관리학전공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야간강좌				야간강좌			
대학	해당학과	학부/학과	전공/학과	대학	해당학과	학부/학과	전공/학과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야)	외국어학부(야)	영어영문학전공(야)	경상대학	경제학과(야)	경제학부(야)	경제학전공(야)
	중어중문학과(야)	외국어학부(야)	중어중문학전공(야)		무역학과(야)	무역학전공(야)	무역학전공(야)
이과대학	전산통계학과(야)	전산통계학부(야)	전산통계학전공(야)	정보관리학과(야)	회계학과(야)	회계학부(야)	회계학전공(야)
	반도체학과(야)	반도체학과(야)	반도체학전공(야)		정보관리학과(야)	정보관리학부(야)	정보관리학전공(야)
사회과학대학	복합학과(야)	사회과학부(야)	복합학전공(야)	광고학과(야)	광고학과(야)	광고학부(야)	광고학전공(야)
	신문화학과(야)	사회과학부(야)	신문화학전공(야)				

인턴사원 모집

1. 채용부문 및 인원: 동국대 복지사업공동 관리위원회, 0명
 2. 대 상: -정규대학 4년제 졸업자 및 95년 2월 졸업예정자
-경상계열, 전산계열 전공자
-생활협동조합에 지식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각각 1부씩
 4. 접수기간: 95.10.2~95.10.5(3일간, 공휴일은 접수 안함)
 5. 접수처: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다화관 지하)인사담당자
 6. 채용방식: 서류 및 면접
 7. 채용조건
가. 채용기간: 95.10.9~96.1.8(3개월)
나. 급여: 위기간 동안은 본 위원회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함
 8. 문의처 및 연락처: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사무국(260-3591~2)
- 동국대학교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공 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96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다 음
- 1.대상: '96.2월 졸업예정자중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
 2. 자격
가)교과과정이수예정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나)비사범계는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3. 접수기간: '95.10.4(수)~10.10(화)일까지
 4.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6. 교원자격증은 무시험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발급되나, 대상자는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 단, 경주캠퍼스는 경주캠퍼스 교무과에서 접수함.
- 사범대학장

DUBS 2학기 방송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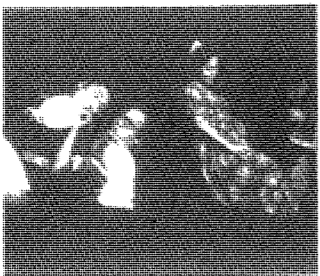
시간	월	화	수	목	금
8:30	동악의 새아침				
12:10	우리말 알고 씹시다.				
12:15	CAMPUS 뉴스				
20	D-U-B-S 캠페인				
25	살며 느끼며	목매 칼럼	시사여론	목매 칼럼	
35		자유소리통	백상초대서		
45	매체비평 -3495	시사초점	동악의목소리	동악의 여제, 오늘	D-U-B-S REQUEST
4:50	민중의 노래				
5:55	D-U-B-S 캠페인				
5:15	공간 95	이야기 방	현장 스케치	한권의 책	동악의 현장
:45	영화속으로	명곡산책	우리가락	POP'S	D-U-B-S
5:50			한마당	SKETCH	QUIZ QUIZ
					교과

공 고

- 아래와 같이 졸업앨범 최종 재촬영 일정 및 기념품 접수시한을 공고합니다.
- 아 래-
1. 앨범 개인사진 최종 재촬영
대 상: 재촬영, 미촬영 추가촬영 희망자
기 간: 10월 4일(수)~10월 5일(목)
장 소: 주노 스튜디오(596-1384)
 2. 기념품 접수 시한
접수장소: 총/준/위(학생회관1층 260-3613)
과별단체접수: 10월 13일(금)까지(인장색상 지정가능)
개별접수: 10월 30일(월)까지
- * 각 과대표께서는 인장샘플을 10월 6일(금)까지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대표께서는 10월 30일(월)까지 과활동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7대 졸업준비위원회

- 96년도 일본 용곡대학 과전 유학생 선발계획**
1. 선발분야 및 인원
가. 선발분야: 용곡대학 개설 전과과
나. 학비, 기숙사비 전액지원, 월 10만엔 장학금 지급(일본 문부성 지급)
다. 선발인원: 2명(학부1명, 대학원 석/박사과정 1명)
단, 대학원 지원자가 적을경우 학부에서 2명을 선발함.
 2. 지원자격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자
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다.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일본어 회화 및 작문에 능통한 자
 3. 특전: 유학생 취득성적 학점인정(단, 본교 해당학기 등록자에 한하며, 등록은 자비로 해야 함-본교는 수업료반액 장학금 지급)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재학증명서 1통
다. 성적증명서 1통
라. 지도교수 추천서1부(소정양식)
 5. 선발방법
가. 학교성적(30%)
나. 1차-일본어테스트(필기30%, 회화 30%)
다. 2차-면접(10%)
 6. 시험일정(서류, 경주 동일함)
가. 원서교부 및 접수: 10.2(월)~10.6(금)-학술교류부
나. 시험일시: 1차-10.12(목)오전 10시, 오후 2시-학술교류부
2차-10.13(금)오전 10시-학술교류부
다. 합격자 발표: 10.23(월)-학술교류부 앞 게시(본관4층)
*경주캠퍼스: 원서교부 및 접수-경주캠퍼스 학생과(시험은 서울에서 일괄 실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처로 문의 바람(전화 260-3025)
- 연구교류처장

문화단신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오는 10월21일부터 12월17일까지 대학로 동송스튜디오 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연주공통제 '서울연극상상블'이 만든 제8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원작자 장정일이 자신의 소감을 직접 희곡으로 각색해 화제를 모으고있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는 재즈풍의 가사를 만곡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한 작품.

◆노동자를 싣고가는 아홉대의 버스2... 극단한강이 내년 1월1일부터 2월25일까지 소극장오늘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91년 '노동자를 싣고가는 아홉대의 버스'를 연극성과 리얼리즘의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작한 작품.

극단 한강은 보다 생생한 연극을 만들기 위해 수기 및 공연후원단을 모집하는 홍보 포스터 제작중.

◆신의 연인... 파스칼 페스타, 캄페넬의 소설 'For Love Only For Love'를 원작으로 한 '신의 연인'은 이태리에서 영화의 휴머니즘적인 접근에 있어 뛰어난 감독 지오바니 베로네시의 작품이다.

'신의 연인'은 93년 이태리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등 12개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



영화의 패러독스

—최근 한국영화의 공통된 소재 '인질극'

억압적 권력·제도에 터뜨린 분노
"어두운 잔재 드러내고 토론할때 승화되는 것"



◆인질극을 통해 관객들은 감춰진 요소들이 폭로되는 '마담'의 미학을 경험하게 된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요즘 한국영화에 공통적 소재가 하나 있다. 인질극 혹은 대치극이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공통점이다. '총잡이'(김의석), '개같은 날의 오후'(이민용),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구임서), 이 세편의 한국영화에는 크든 작든 인질극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공중점이지만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 같은 시대적 징후를 감독들이 갖고 있어서 흥미롭다.

'총잡이'에는 우연히 총을 손에 쥐게된 샐러리맨이 영웅심리에 젖게 되고 그동안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혀왔던 모든 스트레스를 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환상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영화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도시민의 한계를 벗지 못한 주인공은 총을 버리려 하다가 다시 총을 잡게 되는 상황에 부딪힌다. 감독에서 탈옥한 홍익범에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주인공은 버리려던 총을 다시 잡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인질극 장

면은 홍익범으로 전락한 가장 밑바닥 서민이 벌이는 해프닝을 공권력이 아니라 일개 평범한 주인공이 나서서 제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처절한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처리되었다.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에서 인질극은 영화의 반 가량을 차지한다. 역시 '총잡이'와 같은 때락에서 전개되는 이 극은 능력없고 소외된 남자 주인공이 예비군훈련장에서 총을 탈취하여 병소 자기를 괴롭히던 직장상사, 동료, 정신병자에 가까운 악질적인 이웃들에게 복수의 총부리를 들이대고 한바탕 난장판을 벌이는 이야기다.

두편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영화인 '개같은 날의 오후'는 한 아파트에 모여사는 여성들의 집단적 시위를 통해 폭력남편을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구타 살해한 그 사건의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서 경찰과 대치극을 연출하였다. 이 영화는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가 대치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이들 영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질/대치극적 상황은 물론 이미 서구영화에서도 많이 보

아는 낯익은 설정이지만 유독 지금 이 시점에서 동일한 상상력으로 작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폭넓은 사고는 일단 영화를 보는 시각으로서 가장 중시해야할 '자극성'에 대한 문맥이 그 부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 몇년 동안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던 슬픈 인질극과 대치극의 사건들이 그 사회적 원인의 하나일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주는 소재적 요인보다도 인질, 대치극 양식이 갖는 미학적 효과에서 더 넓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질극을 통해 우리 관객이 보게 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마담'의 개념이다. 마담은 그동안 숨어있었던 감춰진 요소들을 폭로하는 작용을 한다. 이들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폭로하고 터뜨리고 싶어하는 것은 위선적이며 억압적인 그 동안의 권위적인 권력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분노에 해당한다. 모든 숨어있던 어두운 잔재들이 일단 지상으로 끌어올려지고, 복되고 장구치며 열띤 토론을 벌일때 관객들의 감정은 한결 승화된 인식을 얻게된다는 것이다.

◆영상시대를 앞두고 본교 대응책을 말한다

뉴미디어시대 대비해 각대학 영상과 신설 움직임
우수 기자재 확보등 장기계획안 마련 시급



◆뉴미디어 시대에는 재택근무, 화상회의를 비롯해 고품위수상기와 대화형시스템으로 홈극장이 탄생한다.

민병록

(예술대 연영과 교수)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각 대학에서도 유사학과와 통폐합과 계열별 모집에 따라 각 대학마다 진흥의 아픔을 겪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영상산업시대는 우리들의 삶 자체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우리들의 생활은 이제 마치 초고속 전송망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복합미디어라는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다.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강의의 들을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휴스핑도 즐길 수 있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화상을 통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고품위(HDTV) 수상기와 대화형(쌍방향) 시스템은 홈극장을 탄생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신

하던 시대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마치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하듯이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볼 수가 있고 원하는 광고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습기, 그 온도에서 느끼기까지의 오감을 컴퓨터 앞에서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2천년까지 초고속 전송망을 가정과 학교, 관공서, 도서관, 영상 공급업자 등에 깔아서 실용화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전송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4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래의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력양성에 각 대학에서 영상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강대학과 고려대학 등에서 영상학과 신설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3년제의 전문대학원도 증설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의 영상관련학과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영상학과 신설을 주도한 우리학교

의 연극영화과도 개혁의 의지와 이에 대응할 혁신적인 대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타대학에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지나간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는 영상학과와 포인트는 이에 대응하는 기자재의 확보에 있어도 과연은 아니다. 서강대학이나 영상원에서는 장기계획으로 1백억을 확보해서 시설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20억을 기자재 확보에 투자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대학에서도 연극영상학부제를 도입하면서 연극전공과 영상전공으로 나누기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제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은 정원의 증가와 공간의 확보 그리고 유능한 교수의 초빙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건대, 앞으로 동국대학의 연극영화과가 계속 우리나라의 영상문화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보다도 우수 기자재의 확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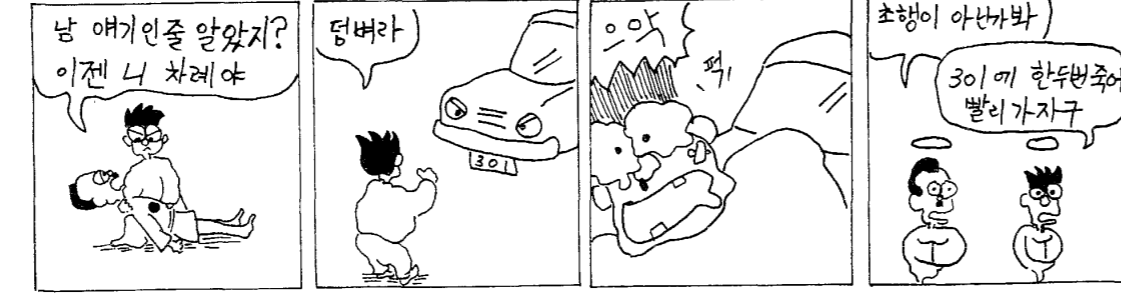
메아리

간 큰 경찰

▲3·40대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 있다고 알려진 '간 큰 남자' 시리즈. "간 큰 남자는 이런 남자다. 아내가 꾸짖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남자. 외출하고 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감히 물어보는 남자." 이런 식의 이야기다. 이 시리즈는 실제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상황 이라기 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하거나, '여성상위 시대'에 대한 시니컬한 비난의 목소리로 들린다.▲지난 9월 27일 밝혀진 어이없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간 큰 남자 못해 아예 부어버린 남자, 그 중에서도 '간 큰' 경찰이 있는 것 같다.승용차로 버스전용 차선을 달린 시민을 발견한 경찰들이 차를 세웠고, "갑자기 차선이 좁아져 어쩔 수 없었다" 등의 실랑이가 벌어진 모양이다. 그러다

경찰이 그 시민을 넘어뜨리고, 그의 아내가 이를 팔리며 항의하자 "총으로 쏘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언제부터 교통위반을 하면 권총 위협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졌는지 모를 일이다. 말도 많던 '딱지 패기'가 소용없다고 느껴서인가. 교통위반 정도로 총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총기난사사건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경찰이 많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발하자 사건 접수를 미루고 합의를 종용해 4일이 지난 후에야 접수를 했다는 것, 경찰도 그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총을 쏘겠다는 경찰을 시민이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간 큰 남자가 또 있을까. 법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경찰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똥소 실처럼 하고 있는데, 자, 이만하면 '간 큰 남편, 간 큰 상사, 간 큰 부모'에 이어 '간 큰 경찰'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릴 만 하지 않을까. (리)



독자의 권리회복을 선언합니다.

1면부터 다른신문 - 경향신문

국내최초 광고없는 1면!
경향이 신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1면은 신문의 상징이며 독자의 지면입니다. 세계의 유명신문 1면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이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 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역사 100년만에 경향이 해낸, 광고없는 1면! 신문의 새 시대를 선도하는, 독자의 신문 - 경향신문 상쾌한 아침, 통쾌하고 따듯한 경향만평과 하루의 기사를 한눈에 볼수있는 뉴스인덱스가 1면에 있습니다. 1면부터 다른 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또 하나의 혁신
신세대판 색선 매거진 X

매거진 X는 주로 중 장년층 독자를 겨냥했던 기존종간지에 소외감을 느낀 신세대를 위해 경향만이 최초로 시도하는 신세대판 색선입니다.

京 郷 新 聞